동양음악 제35집 | 91~123쪽 | 2013.12

금산농악의 문화사적 위상과 의의

김헌선*

〈차 례〉

1. 금산농악 재발견의 내력과 연구 시각
2. 금산농악의 자연지리와 세시절기
3. 금산농악의 특징과 판굿의 구조적 원리
4. 금산농악의 무형 문화유산적 가치

[국문초록]

이 논문은 금산농악에 대한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문화사적 위상과 의의를 조명한 글이다. 금산농악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좌도농악 내에서의 위치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금산농악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좌도농악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연구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전체 농악연구에 일정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산농악의 근간을 밝히고 동시에 금산농악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문화사적 위상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주제어】 금산농악, 좌도농악, 갖은열두마치, 앞굿, 뒷굿

* 경기대학교

1. 금산농악 재발견의 내력과 연구 시각

금산농악은 농악의 소중한 유산이자 긴요한 자료인데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금산농악의 자료 작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론 작업을 함께 다루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금산농악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 많지 않다고 하는 점이 이 연구를 분발하게 한 소인이다. 금산농악의 전통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나설 때가 되었다. 이 점에서 금산농악은 소중한 연구 대상이 된다.

금산농악은 좌도농악으로서 매우 긴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산농악에 대한 정당한 인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금산농악의 가치와 의의를 재발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금산농악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룩된 농악기술지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금산농악에 관해 정밀한 농악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금산농악의 가치를 재발견 하는 데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처음에 이룩된 농악지로 우리는 『금산군지(錦山郡誌)』의 기록을 언급할 수 있다.[1] 농악의 실상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농악을 말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긴요한 제보자가 곧 최상근(崔相根, 1908~1978)명인이었는데,[2] 그 명인의 제보가 온전하게 전사되거나 번역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곧 이 자료는 금산농악의 중요한 가치를 제고하거나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한 기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일련의 의의가 있는 금산농악의 굿거리에 대한 개괄적 인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금산농악의 명맥을 알 수 있는 요

1) 김현구, 「오락과 유희－농악」, 『금산군지』(금산군지편찬위원회, 1969), 388~389쪽.

2) 이 보고서에 아래의 인물들에 대한 내력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금산농악의 중요한 명인들로 김수동, 박오복, 최상근, 정오동, 주기환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수동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1906년생으로 금산농악이나 여타의 걸립굿에서 상쇠를 맡았던 인물이고, 최상근은 장구잽이로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출신의 장고명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박오복은 1907년생으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또는 송탄리 출신으로 부쇠를 맡은 인물이다. 정오동은 1905년생으로, 전북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 출신으로 법고잽이 구실을 하였다. 주기환은 1919년에 태어나 1988년에 사망한 인물로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출생으로 법구잽이로 연풍대와 자반뒤집기 등을 잘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강성복, 『천내강 배걸립굿』(금산문화원, 2000).

긴한 대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원문에 근거하여 옮겨 보기로 한다.

> 이러한 대회 때마다 우리 고장 금산에서 출전하여 여러 차례 우승한 바 있는 대표 금산읍 상리 최상근(崔相根)씨의 말에 의하면 농악대의 한 팀은 꽹과리에 상쇠 1, 중쇠 1, 삼쇠 1, 장고(杖鼓)에 수장고 1, 중장고 1, 삼장고 1, 징 1, 소고에 상벅구 1, 중벅구 1, 기타 벅구 4로서 13명 내지 15명이 정원이며 마치 〈가락〉 수에는 행진곡(行進曲)의 〈질굿〉 마당을 돌 때의 〈자진마치〉, 개인 연기를 자랑할 때의 〈영산〉, 제멋대로 빼빼이를 돌 때의 〈밧삭굿〉 〈풍년굿〉, 숙종대왕 때 임금 앞에 승전고(勝戰鼓)를 올릴 때에 농악으로 표현하였다는 〈소리굿〉, 꽹과리를 든 쇠잡이와 징잡이가 서로 흥겹게 돌다가 맞닿게 되면 반대방향으로 돌아 태극기(太極旗) 모양의 반달형을 그린다는 각진(各陣) 등 7가지가 있으며, 그 외에 부엌이나 장독대에서 잡귀를 쫓고 명복(命福)을 빈다는 〈지신밟기〉가 있다는 것이다.[3]

이 기록에서 금산농악의 소박한 면모가 드러난다. 이것은 아마도 짐작하건대 판굿의 실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하는 양상 자체가 매우 독자적이고 특징적인 금산굿의 전통이 일부 확인된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소략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과연 적절하였는가 하는 점을 일부 반성하게 하는 대목도 보인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정리한 『호남농악』이라는 자료에 제시된 판굿 구성과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저작에 소개된 판굿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4]

> 어림굿, 열두마치판굿, 춤굿(일채－오채), 육칠채굿, 호호굿, 좌우각진굿, 소리굿, 장고춤굿, 품앗이(미지기), 영산, 소고놀이, 쇠놀이, 장구놀이, 스물네마치굿, 느진풍류굿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판굿의 절차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산농악 판굿과 그 용어, 절차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거리가

3) 위의 책, 389쪽.
4) 홍현식・박헌봉・유기룡, 『호남농악』(문화재관리국, 1967), 153~166쪽. 이 책에서 우도굿과 좌도굿의 행진도가 진풀이와 함께 판굿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하여 일정한 순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쉽사리 거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몇 가지 용어에서 좌도굿의 지역유형적 면모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가령 열두마치판굿이라고 하는 용어는 진안이나 금산농악에서만 사용하는 독자적인 용어이다. 이뿐만 아니라 스물네마치굿과 같은 독자적인 면모가 있어서 이 기록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금산농악의 전체적 얼개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있어서, 『금산의 풍악과 소리』가 아주 긴요한 구실을 한다.[5] 금산의 농악이 온전하게 문면으로 떠오른 결정적인 글 가운데 하나였다. 현장에서 연주되는 실상을 중시하고 굿거리의 순서・진풀이・가락 등을 분절하고 보여준 중요한 기여를 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농악의 가치와 의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 구실을 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금산농악의 판굿 구성은 앞의 자료들보다 진전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고 내용 또한 새로운 면모가 있어서 이러한 각도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판굿의 순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내드림굿, 질굿(인사굿, 열두마치굿), 외마치굿, 세마치굿, 네마치굿, 다섯마치굿, 여섯마치굿, 일곱마치굿, 여덟마치굿, 아홉마치굿, 열두마치, 오방진굿(돌굿), 품앗이굿, 호호굿(진호호굿－갈림굿), 돌굿, 각정굿, 영산굿, 개인놀이(상쇠놀이, 장구놀이, 채상놀이), 소리굿, 탈복굿, 파송굿(홍억이타령), 춤굿, 도둑잽이굿

앞의 기술과 실제 판굿의 진풀이나 가락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일단의 기술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괄호로 처리하면서 병기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기록을 재정리하였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판굿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굿이 기록되는 당시의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산농악의 정확한 농악기술지는 현재 없으나 얼마간의 핵심적 소인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산농악보존회〉의 홈페이지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다.[6] 이 기록

5) 정인삼・이소라, 『금산의 풍악과 소리』(금산문화원, 1992).
6) http://www.geumsannongak.co.kr/ 2013년 9월 2일 오전 10시 36분에 접속하여 얻은 자료이다.

은 매우 정밀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각도에서 금산농악의 면모를 배너로 구성하여 보여주고 있어서 금산농악을 아는데 아주 소중한 구실을 한다.

금산농악소개의 개요를 보면, 금산농악의 유래, 금산농악 전승계보, 금산농악 편성 및 복색, 금산농악의 유형, 금산농악 연혁 등을 구성하였다. 동시에 금산농악 판굿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 역시 이해에 결정적 구실을 하게 되는데, 판굿의 구성, 판굿의 진행 절차, 판굿의 진법 형태, 판굿의 장단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요점은 모두 드러났다고 판단된다.

금산농악의 면모를 이처럼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이 농악기록지를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낮은 차원의 이해에서 깊은 차원의 이해로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산농악의 실상을 근거로 하여 차원 높은 비약적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적절한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는 근본적 의문을 삼지 않을 수 없다. 그 작업이 금산농악의 재발견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금산농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산농악지가 온전하게 되었지만 금산농악의 구조적 특성이나 문화적 성격, 그리고 농악 위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는지 여러 모로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금산농악에 대한 연구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산농악의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이 금산농악의 가치를 제고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산농악의 가치를 규정하면서 새롭게 논의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금산농악은 네 가지 각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점을 증명하게 되면 금산농악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금산농악의 전통을 문화적 기반으로 각별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금산농악에서 판굿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판굿의 젖줄기와도 같은 것이 곧 농악이다. 금산농악은 현실적이고 제의적인 기능의 맥락에서 농악의 유용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이 요긴하다. 그 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금산농악의 문화적인 차원의 농악적 특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금산농악은 자료적으로 독자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미흡하다. 금산농악의 자료적 가치를 독자적인 각도에서 추정해야 한다. 금산농

악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진정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산농악은 단순한 모방에 지나지 않는가? 그것만의 독자성은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요긴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산농악은 가락의 명칭이 특별하고, 독자적인 가락이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산농악은 굿, 마치 등의 특정한 용례가 있다. 이것이 지니는 독자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금산농악을 금산농악답게 하는 것은 역시 판굿에 있다. 판굿의 구성과 이를 집약하고 있는 농악의 판제가 분명하고 가림새가 명확한 것을 볼 수 있다. 금산농악의 판제가 분명한 것을 본다면 좌도농악의 중심에 설 수 있을 만큼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굿과 뒷굿의 상관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굿거리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것도 금산농악의 가장 흥미로운 면모이다. 금산농악의 역동성은 여느 농악이 그러하듯이 금산농악의 판굿에서 찾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금산농악은 이웃하고 있는 좌도농악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지역 유형적 특징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고 있는 농악과 서로 견주면서 지역유형으로서의 금산농악이 지니는 독자적 위치를 고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농악의 지역유형적 성격을 규명하는 방증의 사례가 곧 진안농악, 무주농악 등과 연결되면서 나타난다. 특히 진안농악과의 관련성은 금산농악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절대적인 준거로 작동한다. 같은 좌도농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주농악, 필봉농악, 남원농악, 곡성농악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일부 발견되기 때문이다.

금산농악은 지역유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채굿 또는 마치굿의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지니고 있다. 동시에 앞굿에서 영산굿이 있으며, 아울러서 추자받이라고 하는 특정한 자료가 있음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뒷굿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여러 가지 굿이 있는데 도둑잽이놀이굿, 소리굿, 재넘이굿 등의 특정한 굿거리 등이 더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금산농악의 지역유형적 성격은 좌도굿과 거의 일치하고 동시에 그 하위의 지역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금산농악은 지역유형 내 하위의 지역유형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금산농악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산물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 천혜의 자연지리적 조건 속에서 다양성을 구가하면서 인문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독자적으로 생성된 특별한 농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은 금산농악 자체의 연구와 전라 좌도굿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산농악의 성격을 명시하면서 금산농악의 문화사적 위상을 드러내는데 금산농악만한 선명한 자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금산농악의 자연지리와 세시절기

금산농악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연지리적 특성에 입각한 금산농악의 기능과 활용을 주목하는 것이다. 종래의 연구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풍부한 기록이나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의 굿에 대한 기록은 온전하게 조사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점에서 금산농악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금산농악의 특성을 살피는 일이 요긴하다고 하겠다.

금산지역은 산과 강이 서로 어우러지는 특성이 있다. 산은 노령산맥의 줄기가 금산을 관통하고 있으며, 소백산맥이 서로 얽혀서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산맥이 발달하여 이 때문에 산간 지대에 일정한 놀이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형태가 송계대방놀이와 같은 사례일 것이다. 그에 대한 주된 기록을 책자와 홈페이지 자료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금산은 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나무를 하기 위한 조직이 발달하였다. 송계라고 하여 나무를 하기 위하여 초장길을 닦았다. 이 송계는 앉은 대방이라고 하는 책임자를 두고 운영되는데 열두 송계라 하여 많은 마을이 참여한다. 각 마을에는 대방이 있어 앉은 대방의 지시를 따르는데, 백중이 지나고 한가할 때 날을 받아 초장길을 닦아 겨울나무 길을 낸다. 이때, 산에서 산신제를 올리고 길을 닦은 후 강변에 여러 농악대가 모여 각자 기량을 겨루며 합굿을 치기도 하며 때로는 각 마을이 지지 않으려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금산에서는 진악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보티재 송계와 수리넘어재 송계가 있어 길을 닦았는데 길을 닦은 후 강변에 모여 합굿을 치다 큰 다리에서 다리를 건너기 위하여 기싸움도 하였다.[7)]

위의 기록을 전적으로 준신할 수 있다면, 송계대방놀이는 금산의 자연지리적 여건 속에서 성립된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구실을 한 것이 금산농악의 근간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산간에서 이룩한 일들을 이른 바 천변에서 농악대들이 합굿을 친다고 하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이 이른 바 천내강 배걸립굿과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천내강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하여 무주를 지나 충남 금산의 부리면에 이르러 천내까지 오는 금강의 소중한 한 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물줄기의 핵심적 노정인데, 이러한 강의 흐름이 천내지역의 독자적인 자연지리적 특성을 형성시키고 있다.

금강의 흐름이 천내변까지 이르는 동안에 형성된 자연적인 나루와 함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지세와 천 또는 강을 구성하게 된다. 천내강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천의 이름과 함께 아울러서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루가 동원되면서 천내강을 중심으로 하는 배걸립굿이 형성된 것이다. 자연지리의 지세와 더불어서 문화적 창조가 이루어진 현상을 이로써 알 수 있다.

금산은 금강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자연지리를 통하여 금산농악의 위대한 전통을 수립하였다. 자연지리적 조건을 통해서 인문지리적 조건을 활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농악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세시절기와 특별한 목적에 의한 농악을 구성하고 만들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러한 점에서 금산농악은 자연지리의 소산으로 인문지리를 구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금산은 자연지리적 입지 조건이 각별하다. 금산은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재화가 밀집하는 지역으로 정평이 있다. 이러한 금산의 생활조건이 인문지리적 특성을 형

7) 정인삼 외, 위의 책, 26쪽, http://www.geumsannongak.co.kr/ 두 기록은 거의 유사하지만 특히 송계의 기능과 양상을 정리한 것은 홈페이지 자료가 더욱 유익하다. 밑줄 친 부분은 홈페이지의 기록에만 존재한다.

성하게 하였고, 그 결과 금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진안군 용담, 무주군 일대의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문화적으로 친연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일부 확인된다. 즉 금산의 지리적 조건이 이들 지역과 생활 문화적 공유하게 된 기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금산의 지리적 조건과 생활 문화적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금산농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수 있을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인문지리적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축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세시절기이다. 이때, 세시절기의 준수와 실행은 농악과 짝을 이루며 정확하게 분절을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접합점을 이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인문지리의 축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같으면서 다른 양상으로 실현되는데 그 실현 양상을 통해서 일련의 구조적 의의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인문지리적 성격과 자연지리적 면모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금산농악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농악의 유형 역시 간단하지 않다. 이를 일단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의거한 일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금산농악은 세시절기에 의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표 1〉 세시절기와 농악

구분	절기 기능	구체적 시기	굿 명칭 실제	구체적 면모
세시절기	섣달	섣달 그믐	매굿	구나의 의식으로 하던 굿으로 섣달 그믐에 한다. 새해맞이 굿으로 내력이 오랜 굿 가운데 하나이다.
	정월	초사흘-열나흘	*마당밟이	마당밟이는 마을의 고사를 겸하는 특정한 굿으로 달리 뜰붋이라고 이른다
		보름날	당산제	당산제를 하면서 넓은 마당에서 판굿을 한다 신성한 음악에서 예술적 음악으로 전환된다
	사월	모내기	기우제	모내기를 하면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신미고사와 같은 의례에서 치는 굿이다
	오월	단오	명절굿	금산 지역이 단오권과 추석권이 복합되는 지역이므로 단오와 추석을 명절굿으로 친다
	칠월	김매기	*두레풍장굿	두레풍장굿은 김매기를 하는데 두레기와 신기를 내세우고 굿을 치는 것이다
	칠월	백중일	*송계대방합굿	금산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굿으로 칠월 백중의 기세배 합굿 형식이 변형된 것으로 중요하다
	팔월	추석	명절굿	앞에서 언급한 단오굿과 거의 같은 양상으로 칠석굿과 같은 사례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걸립굿	정월 대보름	초사흘-대보름	보름걸립굿	대보름의 의례를 위해서 치는 굿이며 걸립을 중심으로 하는 굿에서 이 점이 발견된다
	정월 대보름	배걸립굿	*천내강 배걸립굿	금산의 지리적 특성인 금강의 나루와 배를 위해서 치는 굿으로 가장 독자적인 굿 가운데 하나이다.
짐승구축	필요에 의해		몰이굿	자연적 재해를 물리치는 굿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인데 현재는 이러한 굿이 전승되지 않는다.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짐승의 재앙)

위 도표를 통해 금산농악의 다양한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다. 세시절기에 관련된 농악의 사례를 정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매굿과 마당밟이가 섣달 그믐날과 정월 대보름까지의 일련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나의례를 한국적으로 적용한 매굿과 같은 것은 중요한 전례이다. 이 사례에 대한 18세기적 용례를 견주어서 본다면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보름날을 기점으로 하여 당산제를 지내고 걸립굿을 치는 것 역시 그러한 각도에서 소중한 전례로 특기할만하다.

사월의 모내기를 하다가 가물었을 경우에 기우제를 지내거나 모판의 모판신미를 위해서 굿을 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간직한다. 굿의 다면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이다. 오월과 팔월에 명절날 굿을 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정하게 명절굿을 오월 단오와 팔월 추석에 지내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두레풍장굿은 또한 금산농악의 중요한 특성이다. 두레풍장굿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상이라고 하겠으나 금산의 두레풍장굿에서의 농악과 농요는 매우 인상적이다. 두레풍장굿의 전통을 통해서 금산농악의 특징적 면모를 고취할 수 있으며 금산농악의 두레굿 전통이 이어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두레풍장굿이 금산농악의 긴요한 소인으로 작동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뒤에 규명하겠지만 두레풍장과 같은 농악의 조직적 의례는 다른 조직과 상충하거나 상합하지 않을 수 없다. 금산에서는 송계와 같은 긴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직이 있어서 두레풍장과 같은 것과 농악의 기능이 서로 연결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산의 송계에서는 농악과 같은 것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단오와 추석을 모두 중점하여 명절굿을 치는 것은 금산의 특별한 면모이다. 추석권과 단오권으로 갈라지고, 단오권과 추석권을 함께 고려하는 특정한 권역이 있는

데, 명절굿을 이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복합권으로 일정한 기능을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시절기에서 특정한 사례는 칠월달의 백중날에 하는 농악의 기능이다. 칠월 백중날에 하는 송계대방놀이굿은 금산 지역만의 독자적 특색을 드러내는 특별한 면모이다. 가령 산간지대나 산악지대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송계를 구성하여 일정하게 백중날의 의미를 환기하면서 기세배와 같은 전통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칠월달의 백중날 의례이며 이 과정에서 농악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8)]

송계대방놀이굿을 현지에서는 달리 이르기도 한다. 이것을 흔히 총각대방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일꾼을 뽑고 놀이를 전개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용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총각대방놀에서 가장 신명나는 구경거리는 흔히 쇠싸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쇠로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농악놀이와 같은 쇠꾼들의 싸움을 이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합굿을 치면서 큰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기싸움과 기세배 형식을 차용하여 농악과 놀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농악놀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기싸움의 형식으로 송계의 주도권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농악놀이를 전개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며, 이는 금산의 경우 농악의 기능이 다채롭게 활용되고, 변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연합송계에서 하는 이러한 의례에서 가장 핵심은 초장길을 내는 의례이자 놀이였다고 전한다.[9)] 초장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산에다 나무를 하는 길을 내는 것을 일컫는데, 이 의례를 통해서 두레의 호미씻이 못지 않은 농악놀이나 합굿, 쇠싸움을 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두레에서 하는 호미씻이 역시 백중날의 요긴한 행사인데 이를 능가할 정도의 농악놀이를 했다고 하므로 송계의 초장길내는 놀이가 농악에서 차지

8) 강성복, 『금산의 송계』, 금산문화원, 2001, 81~83쪽. 이 저작에 의해서 금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송계의 존재가 가지는 사회적・의례적・노동적 기능에 대한 총괄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점에서 이 저작의 의의를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송계가 두레나 촌계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농악의 현지적 의의가 있는지 선명하게 집약하고 해명하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송계의 중요성이 농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절감하게 하는 보고서이다.

9) 강성복, 위의 책, 81쪽. 자세한 사정은 이 책에 의한다.

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산농악에서 걸립굿을 친다는 사실이다. 걸립굿 가운데 특기해야 할 사실은 천내 걸립굿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10] 천내 배걸립굿은 그 연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나루를 거설하거나 배를 다시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산지역이 내가 많고 금강의 주된 줄기를 형성하는 자연지리적 특수성이 금산농악에 반영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금산농악의 전통은 천내 배걸립굿과 같은 것이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짐승을 구축하는 몰이굿 역시 요긴한 농악 굿 가운데 하나이다. 제액초복하는 의미로 동물의 폐해가 심각했던 시절에 짐승을 몰아내기 위한 굿이 바로 몰이굿이라고 할 수 있다. 짐승을 몰아내면서 하는 굿이 농악으로 쓰였던 전례를 금산농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금산농악의 다양한 기능을 재확인할 수 있다. 금산농악은 판굿에서 몰이굿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몰이굿의 일정한 기능이 살아 있는 대표적인 농악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된다. 결국 자연지리에 입각한 인문지리적 창조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금산농악 판굿의 몰이굿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건대 금산농악의 참다운 기능은 자연지리와 인문의 세시절기가 결합되는 양상에서 확인되는데, 그 실상은 두레·송계·걸궁 등을 통한 활성화가 긴요하게 맞물려서 전개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두레를 통해서 농악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호미씻이와 같은 노동의례의 완결성은 금산농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자연지리와 같은 입지조건에서 유래된 송계의 존재 역시 대방놀이나 총각놀이를 통해서 농악의 사명을 일깨운 자랑스러운 전통이 된다. 게다가 배걸립굿과 같은 것 금산에서만 존재하는 특정한 농악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10) 강성복, 『천내강 배걸립굿』(금산문화원, 2000). 이 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천내강의 배걸립굿 실상이 상세하게 규명되었다.

3. 금산농악의 특징과 판굿의 구조적 원리

금산농악은 여러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산농악의 차별화된 특징은 판굿에서 발견된다. 판굿의 실체를 분석하게 되면 금산농악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리라고 판단된다. 금산농악의 전통을 통해서 일련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판굿을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금산농악의 특징을 결정짓는 몇 가지 소인을 들고, 다음으로 금산농악 판굿의 구조적 원리가 무엇인지 논의하기로 하겠다.

1) 금산농악의 특징

① 마치굿의 전통과 갖은열두마치

좌도굿의 기본적 특징은 마치굿에 있다. 좌도굿에서는 마치굿과 채굿이라고 하는 용어가 동시에 사용된다. 그러나 마치굿과 채굿의 사용범위에는 일정한 지역적 차이가 있다. 진안농악이나 금산농악에서만 이를 마치굿이라고 하는데, 그 권역에 일정하게 마치굿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파악된다. 채굿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용어의 차별성을 통해서 일정하게 좌도굿으로서의 전통을 금산농악에서 파악하는 것은 요긴한 문제이다.

채굿과 마치굿의 용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으므로 이 특징은 중요한 인문지리적 지역유형으로 구현된다. 채굿은 필봉, 남원, 곡성 지역의 농악에서만 사용한다. 이와 달리 마치굿이라고 하는 용어는 금산지역과 진안지역의 증평농악에서만 등장한다. 지역이 달라지면서 자신의 전통과 근거에 입각하여 특정한 용어에 의한 특성을 발현한다는 점을 용어로서 확인할 수 있다.

마치굿으로 특징을 지울 수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다. 마치굿은 특정하게 징의 점수와 관련이 있으며 징의 점수에서 일정하게 마치굿이 존재하는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확인하게 되는 점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이 점에서는 채굿과 관련이 인정되므로 마치굿만의 특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치굿으로서 더욱 중요한 국면이 있다. 그것은 마치굿으로서의 특성으로 일정하게 조직적 원리가 감지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마치굿이 인접하면서 일정하게

변형되면서 누적되고 확대된다고 하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정한 배열 방식이 존재한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마치질굿－갖은열두마치－[세마치・네마치・다섯마치・여섯마치‖일곱마치‖여덟마치‖아홉마치]－ …… －느진마치

마치굿이라고 하는 특징 아래 일반적인 전개가 특별하게 구성된다. 외마치질굿과 갖은열두마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지만, 일정하게 서두 구실을 한다. 그러면서 마치의 점수가 점차로 늘어나지만 징의 점수에 의한 가락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치의 변화에 의해서 진풀이가 다르게 구성되는 점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마치굿의 작은 단위 속에서 미세하게 마치의 배열이 인정되어서 잉어걸이－재넘기두마치－두마치 등으로 색다른 소인을 간직하고 있다. 마치는 굿거리 하나로서도 작동하고 세부적인 굿거리의 하위 단위로서도 작동하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되면서 반복되는 작은 마치가 있고, 비고정되면서 달라지는 큰 마치가 있다. 큰 마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마치 가락이 구성되는 것이고, 작은 마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것의 반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굿은 큰 마치와 작은 마치가 상이한 각도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굿의 덩어리를 형성한다. 마치굿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일정한 가락의 크기가 누적되며 점차 확대되어 나가지만 동시에 확장 속에서 작은 마치의 소인들이 반복되면서 동시에 반복에 의한 즐거움이 확인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마치굿의 소인은 금산농악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채굿을 간직하고 있는 필봉농악이나 남원농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동일하게 확인되나 가락의 유기적 확장과 전개가 채굿에서 선명한 것은 아니다.[11] 가령 필봉농악의 채굿에서는 오채굿에 일정한 이상이 발견되고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일정한 결락이 있다. 그러한 점은 남원농악에서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채굿 가락에 있어서 일정한 변이가 있다.[12] 그러나 이 변이는 농악의 전승 과정에서 생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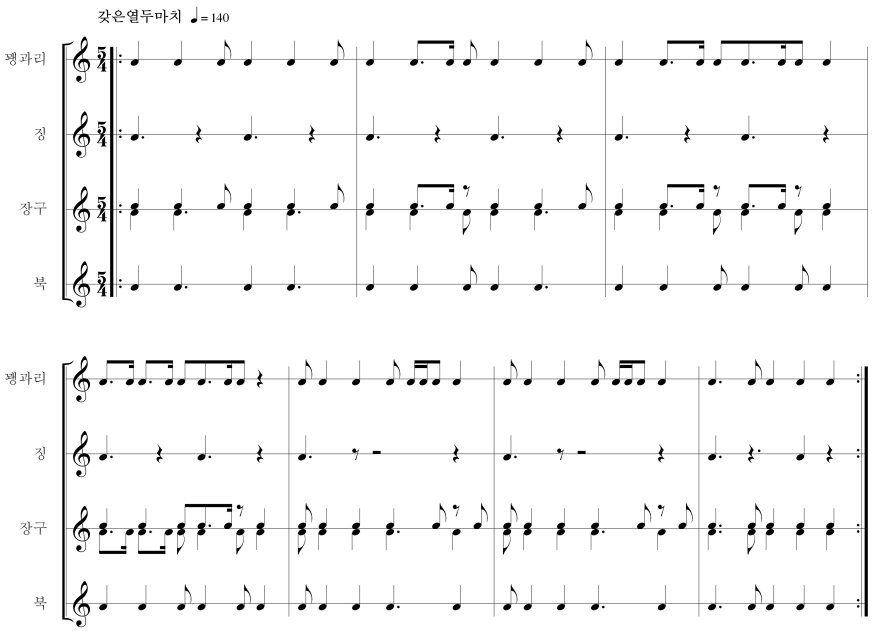
11) 『임실필봉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차이이므로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마치굿의 중요한 면모이고 좌도굿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금산농악의 현상이 이를 가장 선명하고도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특정한 마치굿의 존재이다. 그것이 바로 갖은열두마치이다. 열두마치는 좌도굿, 그 가운데서 금산농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현상이 하나 더 있다. 마치굿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주하는 것이 갖은열두마치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굿은 전라 좌도굿의 특성, 그 가운데서도 채굿의 앞에서 주된 기능을 하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굿을 내기 전에 연주하는 갖은열두마치굿이 그것이다. 갖은열두마치의 장단 구성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13]

〈악보 1〉 갖은열두마치의 장단 구성요소



12) 김정헌, 『남원농악의 장단』((사)한국농악보존회 남원지회, 2006).
13) 이 악보는 금산농악보존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전인근의 사보에 의한 결과를 인용한다.

갖은열두마치는 징의 점수가 열두 개로 된다.[14] 그렇기 때문에 징의 점수를 통해서 열두마치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 그것은 혼소박으로 이룩할 수 있는 모든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혼소박으로서의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락이라고 하는 점이다. 혼소박으로 융합하여 발현할 수 있는 가락을 모두 드러냄으로써 혼소박 가락의 총화, 채굿의 변혁을 가장 선명하게 집약하고 있는 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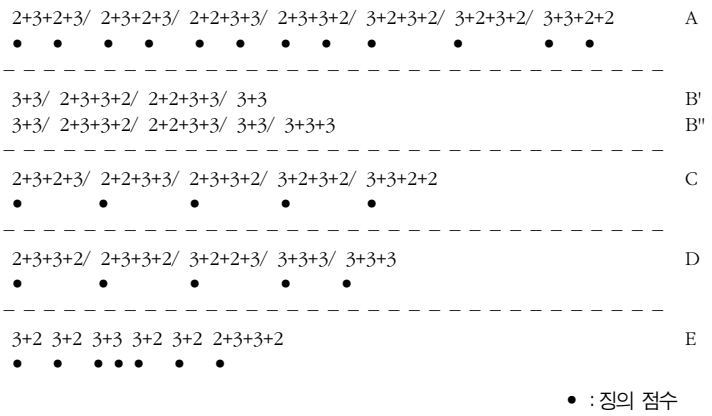
금산농악의 갖은열두마치가락은 우리나라 농악의 혼소박으로 이룩된 가락을 유형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선명한 예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열두마치가락을 지니고 있는 가락으로 우리는 진안증평농악을 더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열두마치가락을 일정하게 판굿의 서두로 활용하고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작은 국면에서 벗어나서 거대한 국면으로 이 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락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의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껏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금산농악의 갖은열두마치는 매우 주목할 만한 가락이고, 금산농악의 특성을 선명하게 집약하고 있는 가락 가운데 하나이다. 이 가락은 점진적으로 혼소박을 연결하면서 고난도의 뒤집기를 통한 일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개하는 가락 가운데 하나이다. 우도농악의 우질굿처럼 새로운 차원의 질굿을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긴요한 가락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점을 이해하는 연주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정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혼소박 가운데 판굿의 서두를 장식하면서 일정하게 절름발이 장단으로 등장하는 예증을 살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단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예증을 인용하면서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갖은열두마치는 두 군데서 전승된다. 하나는 금산농악이고, 다른 하나는 진안증평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갖은열두마치농악 가락을 전승하는 두 지역은 좌도 지역의 동북부의 지역유형을 판별하는 가장 소중한 예증이 아닌가 한다. 김익두 외, 『호남좌도풍물굿』(전북대학교 박물관, 1994), 52~53쪽.

〈그림 1〉 인접지역의 여러 가지 장단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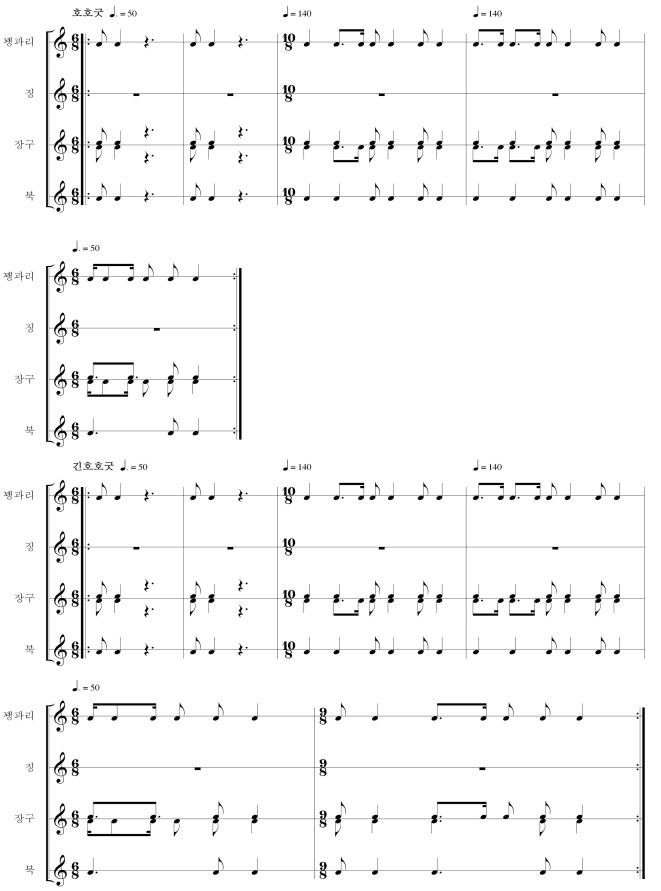
A는 갖은열두마치가락을 늘어놓은 것이다. 기본적인 이치는 간단한데 징의 점수를 교묘하게 늘리면서 혼소박으로 된 것들의 리듬구를 한껏 확장하고 변주하면서 가장 신명나면서 흥미로운 가락을 구성하고 있다. 혼소박의 구성을 가능한대로 모두 구현하면서 부침새와 배열을 달리하여 혼소박의 구성을 달리한 것이 핵심이다. 근본적으로 소수로 된 2소박과 3소박을 네 개로 해서 4박을 구성하는데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넣었다.

징의 점수 역시 4박을 둘로 나누어서 둘씩 치다가 다섯 마루와 여섯 마루에 한 번, 마지막 일곱 마루에서는 다시 두 번 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마무리하였다. 일곱 마루에서 같은 마루를 첫째 마루와 둘째 마루, 다섯 번째 마루와 여섯 번째 마루에서 반복한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비균등의 균등 분할을 시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치는 간단한데 생기는 변화의 모든 것을 이 가락에 간직하고 있다.

열두마치는 대체로 두 번 쓰이는데 한번은 앞굿의 질굿 다음에 다른 한번은 뒷굿의 밧삭굿을 치는 때에 이를 연주한다. 그렇게 해서 앞굿과 뒷굿의 상호 수미작용을 하게 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금산농악에서만 발견되며 이를 확장하면서 다시금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갖은열두마치와 보통열두마치의 상관성 역시 긴요한 해명 과제이다. 보통열두마치는 흔히 벙어리열두마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질굿과 같은 것이나 마당밟이를 하는데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한다.[15]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루가 다 등장하고 벙어리채에 징을 넣는 특징은 매우 요긴한 것으로 이해된다.

A와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혼소박을 전개하는 굿이 존재한다. 그것이 호호굿이다. 호호굿은 우도굿이나 좌도굿에서 모두 존재하는데 이 굿의 양상을 살피면서 이와 같은 특성이 굿거리에 어떻게 가락으로 구현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B'은 호호굿이고, B''는 진호호굿이다. 이를 가락보로 정리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악보 2〉 호호굿과 진호호굿의 가락보 정리



15) 김익두 외, 위의 책, 35~36쪽. 보통 열두마치와 벙어리삼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조왕굿에서 치는 것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에 쓰는 길굿가락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이 가락 역시 같은 계통의 혼소박으로 구성된 가락인데, 이 가락에는 구성요소가 달리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성소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3+3의 존재이다. 3소박을 둘을 합쳐서 리듬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 구성요소가 긴밀한 변화를 형성한다. 그 장단 요소에다 혼소박으로 된 4박의 구성소를 덧보태면서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진호호굿에서도 같은 양상이고 뒤에 3+3+3이 결합되면서 특징적인 변화를 형성한다. 호호굿은 징을 치지 않고 가락을 구성하는 점에서 차별된다.

혼소박의 장단 요소가 구성되는 특징은 여럿이 있다. 단일하게 혼소박으로 구성되는 것이 있다. 이와 달리 혼소박의 구성 내용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특정하게 결합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 이와 달리 혼소박에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하면서 일정하게 마루를 형성하고 길게 늘리는 것이 있기도 하다. 혼소박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리한다면 좌도굿에서 갖은열두마치와 호호굿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 각각의 구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와 같은 가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다만 논리적 연결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설정이냐 하면, 논리적 연결을 통해서 일련의 혼소박으로 된 여러 가지 가락의 실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준거틀이다. 갖은열두마치에서 반복구를 빼고, 다시 둘로 나누던 징의 점수를 마루의 머리만 친 결과를 가상하여 갖은열두마치를 줄인 것이다. 그러자 비교적 예상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징의 점수가 다섯 개이므로 이것을 오채라고 할 수 있으며, 오채 역시 비교적 예상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갖은열두마치나 오채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가락임이 구성요소로 밝혀졌다.

D는 실제로 연주하는 오채질굿이다. 우도굿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오채질굿이라고 하는 우도판굿의 서두에 연주하는 가락이다. 오채질굿은 징의 점수가 다섯 번 쳐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혼소박으로 구성되며, 적절하게 2·3·3·2 2·3·3·2 3·2·2·3 3·3·3 3·3·3 등의 구성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분명해진다. 처음의 2·3·3·2에서는 기본적 가락의 모티프를 냈다. 다음의 2·3·3·2에서는 잔가락을 넣어 변주하였으나 처음의 반복이다. 3·2·2·3에서는 처음에 이루어진 안팍의 혼소박의

구성소를 바꾸었다. 그렇게 하자 가락에 새로운 비약이 이루어졌다. 3·3·3으로 가락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마지막에 3·3·3으로 변주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D의 가락은 앞에서 들었던 A의 갖은열두마치와 가장 흡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외마치질굿을 치고 처음에 하는 굿거리인 점에서 일치하고 우질굿을 치면서 하는 것이 일치하고 혼소박을 다양하게 일정하게 꾸러미를 이루면서 치는 것이 일치한다. 좌도굿의 갖은열두마치굿과 우도굿의 오채질굿은 기능이나 가락의 특성이 일치하며,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깊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오채질굿과 갖은열두마치는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다. 농악의 의례적 기능이나 제의적 기능을 이해하는데 가장 긴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좌도농악 가운데 금산농악과 진안증평농악만에서만 이러한 갖은열두마치가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좌도농악권내에서 필봉농악이나 남원농악, 그리고 곡성죽동농악에서는 이러한 가락이 전하지 않고 있다. 오채질굿과 같은 것이 전하지 않고 명칭만 있는 경우도 있고, 채굿의 앞에 이러한 가락이 있지 않고 일정하게 전하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그 대안이 없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좌도농악 가운데 진안증평농악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갖은열두마치가 그 수명 한계에 도달하여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금산농악 역시 그러한 점에서 전승의 튼실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E와 같은 사례 역시 우리농악의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길군악7채라고 알려진 것인데 이 가락 역시 거의 동일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으며 전개법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3+2 3+2 3+3 3+2 3+2 2+3+3+2의 구성이 그것이다.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것 같아도 갖은열두마치나 오채질굿과 견주어서 보면 비교적 간단한 악구들의 꾸러미들이 결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길군악7채의 요체는 3+2와 3+3와 같은 단순한 것들의 반복이 아니다. 길군악7채의 징 점수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이를 본원적 차원에서 결합시켜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결합하는 더 큰 틀을 파쇄시켜서 연주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큰 틀에서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것이 확인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틀이 확인된다.

3 / 2 // 3 / 2

3 / 3 // 3 / 2 // 3 / 2

2 / 3 // 3 / 2

길군악7채는 가락이 빠르고 징의 점수가 색다른 분절법에 의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맛이 나지만,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본질적인 일치점이 발견된다. 혼소박의 악구를 리듬소를 내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앞에다 혹은 뒤에다 3+3의 특이구를 삽입하고 아울러서 마지막에서는 2+3+3+2의 뒤집기를 시도하였다. 그렇게 하자 이른 바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앞의 리듬소를 뒤집으면서 차원 높은 수준의 가락을 완결하고 있는 셈이다.

혼소박이 결합된 양상이 우도굿의 오채질굿과 깊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혼소박으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마루가 길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그것이다. 오채질굿은 징의 점수를 통해서 마루를 분절하고, 그에 반해서 갖은열두마치는 징의 점수를 2박 단위로 자르면서 나중에 길게 자르다가 2박 단위로 분절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혼소박의 장단 길이가 열두마치가 길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양상으로 구현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갖은열두마치의 특징과 오채질굿의 장단 구성이 비교되는 이유가 곧 제의적인 장단이 앞에 오는 것과도 서로 비교된다. 채굿 앞에서 구실을 하는 것과 오채질굿이 앞에서 연주되면서 굿머리를 장식하는 것과 서로 연관되는 점을 보면 열두마치와 오채질굿의 상관성을 거듭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갖은열두마치와 오채질굿의 비교 가능성은 서로 충분하게 존재한다.

② 영산굿과 추자받이

좌도굿을 특징짓는 요긴한 소인 가운데 하나가 영산굿에 있다.[16] 영산굿은 전국

16) 김헌선, 「농악의 연행미학－좌도 영산굿 쇳가락, 그 뜨거운 충동의 미학을 구실삼아」, 『풍물굿의 미학적 지평』(한국풍물굿학회, 2013년 전반기 학술발표대회, 2013년 8월 24일), 32~46쪽. 이 글에서 이 영산굿의 좌도적 특징을 해명한 바 있다. 그 논의를 토대로 하지만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적인 용어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곧 영산굿이다. 영산굿을 우도굿에는 없으며 좌도굿에 일부 발견되고 가락의 짜임새나 전개가 가장 특징적인 굿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좌도굿의 영산굿은 가장 특별한 것이며, 기원, 연행, 의의 등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굿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영산굿은 기악이나 현악으로 알려진 영산회상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외형과 전개가 유사하게 되어 있다. 영산은 농악의 기원이나 근거가 불교적 음악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 점을 명시하고 있는 명징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영산굿이 영산회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치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산회상에서 일정하게 상영산-중령산-세령산-가락덜이-상현도드리-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 등으로 지칭한다. 영산회상을 조곡과 같은 형식이라고 이해한다면 영산굿의 틀 역시 조곡과 무관하지 않다.

영산굿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진행되는데, 가령 느린영산-가진영산-영산다드래기-미지기영산 등의 전개가 눈에 띈다. 가락의 수 역시 단순하지 않다. 마루로 전개되다가 일정하게 장단이 마루에서 장단으로 줄어들고, 마침내 장단과 장단, 장단과 분박 등으로 전개되면 장단의 가락 배열이 촘촘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마루에서 장단, 장단에서 박자로 줄어드는 특징은 각별하고 영산굿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소인이 된다.

영산굿은 앞굿과 뒷굿의 중요한 경계면에 해당하고 전이와 전환이라고 하는 국면에서 연주되는 좌도굿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특징은 쇠잽이들의 부들상모짓으로 다변화되어 나타나는데, 가락과 부들상모놀이, 쇠발림 등을 다양하게 구현하고 있다. 쇠잽이들이 가락에 치중하고 윗놀음을 화려하게 구현하는 것 못지 않게 다른 잽이들이 쇳가락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것은 일대 장관이다.

금산농악의 영산굿 역시 이러한 좌도굿의 영산굿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구실을 하며 일반적 특징을 구현한다. 금산농악에서 홑영산굿에서 겹영산굿으로, 겹영산굿에서 영산다드래기로, 다시 영산다드래기에서 두마치로 전개되는 것은 용어나 전개에 있어서 일정한 특징을 가진다. 다른 좌도 지역에서 금산농악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점에서 진안 증평에서 하는 영산굿과 상통한다.

금산농악에서 영산굿은 쇠잽이들이 원안으로 들어가서 선 채로 상쇠와 부쇠가 함

께 품앗이가락의 형태로 영산가락을 연주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상쇠의 가락을 부쇠가 받아치면서 함께 연주하는 것으로 소쩍새가락을 나누어서 치는 현상은 다른 좌도와 차별화되는 일련의 연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고장에서는 상쇠와 부쇠가 하는 행위가 전혀 다른 차원이며 쇠잽이들의 구실이 한층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산농악이나 진안농악은 이러한 형태를 달리 전개하는 면모가 있다.

영산굿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개인놀이가 있다. 개인놀이는 판굿에서 치배들이 영역별로 모둠별로 자신들의 기량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독자적 용어를 갖추고 있다. 그 놀이를 추자받이라고 하니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도굿에서 말하는 구정놀이과 같은 용어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구정놀이와 추자받이가 있어서 판굿의 개인놀이를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

진안중평농악에서는 이 대목이 독자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데, 곧 왼잔지래기와 반잔지래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가락은 외지에서 들어온 것인데 가령 경상도 등지에서 연행되는 가락이 들어와서 특정하게 잔지래기라고 하는 독자적인 가락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점에서 금산농악은 진안농악과 다른 면모가 있다. 가락의 이름이 있는 것과 달리 금산농악에서는 이를 추자받이라고 하는 점도 의미 있는 현상이다.

영산굿과 추자받이가 서로 연계되는 것은 판굿의 전환에서 일정하게 새로운 비약을 위한 전략이다. 앞굿에서 보이는 마무리로 뒷굿을 위한 준비 절차이다. 농악대의 신명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다른 한편에서 집단의 기예에서 개인의 기예로 바꾸고 영산굿과 추자받이의 신명놀이를 마친 다음에 다른 굿으로 이행된다.

③ 흥어기타령

금산농악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흥억이타령을 부른다고 하는 사실이다. 〈흥어기타령〉은 파송굿과 같이 굿을 다 마치는데서 부르는 특징적인 소리인데 이것이 이른 바 좌도굿에서 존재하는 소리굿 또는 노래굿과 분별되는 특별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흥어기타령〉은 후렴구에 흥어기라고 하는 말로 받기 때문에 이 소리의 명칭이 유래된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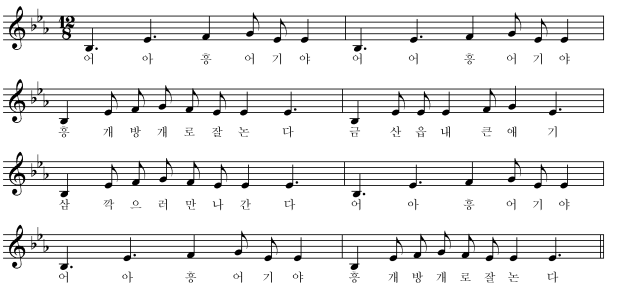
〈흥어기타령〉을 부르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소리는 판굿의 끝에 부르기

는 하지만 그렇게 쉬운 노래가 아니라고들 한다. 그 이유는 판굿의 뒷굿에 하는 소리로 노랫말이 박 속에 빼꼭하게 꽉꽉 차는 특징이 있으며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려운 노래가 이 소리라고 증언한다. 세 마치 장단으로 부르는 이 소리는 굿을 마치는 과정에서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소리와 일치한다. 가령 논의의 관점을 확대하게 되면 반굿거리, 춤굿, 덧뵈기로 부르는 상사풀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소리의 실상을 보면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되어 있으며, 이 소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소리의 면모를 보도록 한다.

〈악보 3〉 흥어기타령

흥어기타령



어아 흥어기야 어어 흥어기야 흥개방개로 잘 논다
금산읍내 큰애기 삼깍으러만 나간다
어아 흥어기야 어어 흥어기야 흥개방개로 잘 논다
진맹경 큰애기 망근찔로만 나간다
어아 흥어기야 어어 흥어기야 흥개방개로 잘 논다
순대먕 큰애기 솟쿠리 찔로만 나간다
어아 흥어기야 어어 흥어기야 흥개방개로 잘 논다

이 타령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 금산농악에서는 이 소리를 농악이 마칠 때에 파송굿에서 부른다고 하니 이는 각별한 점이다. 본래는 이 소리가 논매는소리에서 불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치점이 있는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 가령 농악치는 일을 마치기 때문에 이 소리를 쌈싸는소리로 했을 개연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지 의문이 생긴다. 이 소리를 하고 농악을 마치고 갈리면서 마지막 신명떠름을 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 타령의 의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짐작된다.

받는소리는 굿거리장단과 한배가 맞으며, 세 장단으로 구성되고, 메기는소리는 굿거리장단과 한배가 맞으며, 두 장단으로 구성된다.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교묘하게 엇물리면서 이른 비대칭의 대칭적 구조를 창안하면서 소리의 입체적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금산농악보존회에서도 이를 세마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 소리는 홍어기타령으로 금산농악에서는 사설이 몇 마디 밖에 안되지만 다른 고장에서는 동일한 소리를 〈홍개방개타령〉이라고 하면서 이를 상세하게 부르는 점을 볼 수 있다.

진안농악에서는 이 소리를 춤굿 뒤에 연행하고 파송굿과 같은 데서 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소리 곧 타령은 좌도굿의 일부에서만 발견되고 특히 전라북도의 북부지역과 금산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봉황리의 김봉렬 상쇠는 이 소리를 김인철에게 18세 무렵에 배웠다고 하고, 풍물을 치면서 놀 때에 부른다고 증언하고 있다.[17] 그러나 금산농악에서는 〈홍개방개타령〉이라고 하지 않고, 이를 단순하게 〈홍어기타령〉이라고만 한다.

〈홍어기타령〉와 〈홍개방개타령〉은 농악의 신명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으로 소리의 입체적 준거이다. 그러나 〈홍어기타령〉은 그 기능이 분명하다. 굿을 마치면서 소리를 하고 아울러서 농악을 마무리하는 파송굿의 기능을 한다. 이 점에서 금산농악

17) http://yoksa.aks.ac.kr/jsp/um/SoundListen1.jsp?um10no=msu_6026&um20no=0702_02_6026
http://yoksa.aks.ac.kr/jsp/um/SoundListen2.jsp?um10no=msu_6026&um20no=0702_02_6026
이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면 노래에 대한 대담과 노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소리는 18세 때에 김인철에게 배웠으며 이 소리를 생사놀을 할 때에 부른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소리는 뒤에는 달리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기도 했다고 증언한다. 김봉렬 상쇠는 평생 도대목을 한 인물로 이른 시기에 소리와 농악을 배워서 굿판에서 활약하였다. 굿판에서 쇠도 치고, 두레소리판에서 선소리를 메이면서 중요한 소리들을 전수하고 있는 인물로 주목된다. 이 인물의 증언에서도 이 소리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홍개방개타령〉이라고 하는 소리가 기능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있다.

의 특별한 변형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소리가 있는 진안농악에서는 신명하는 놀이 때에 이 소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산농악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으나, 이상과 같은 몇 가지를 중심으로 좌도굿과 금산농악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현상을 서술하였다. 갖은열두마치, 영산굿과 추자받이, 파송굿의 〈홍어기타령〉 등은 다른 농악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정한 요소이다. 금산농악의 중요성은 이로써 자명해졌다. 금산농악의 비교적 고형의 가락과 특징, 화려하고 아름다운 굿거리, 농요와 농악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굿판을 향유하는 형식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2) 판굿 : 앞굿과 뒷굿의 전통

금산농악은 앞굿과 뒷굿의 결합이 이례적이며 구성이 특별하게 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굿과 뒷굿의 구성은 호남농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원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금산농악의 전통 속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금산농악의 앞굿은 마치굿, 오방진굿, 품앗이굿, 호호굿, 영산굿과 추자받이와 같은 것이 등장한다. 뒷굿에서는 이른 바 춤굿, 미지기굿, 몰이굿, 밧삭굿, 도둑잡이굿, 소리굿, 파송굿, 홍억이타령, 재넘기굿 등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특성이 있다.

〈표 2〉 앞굿과 뒷굿의 구성

굿	굿거리 순서	진법	가락 구성
앞굿	내드림	방진	나팔수 천하성 3초, 내드림굿, 두마치, 인사굿
	외마치 질굿	역원진→원진굿	외마치질굿, 문굿, 재넘이두마치, 두마치, 인사굿
	갖은열두마치	원진→겹원진	갖은열두마치, 외마치, 재넘이두마치, 두마치
	세마치, 네마치, 다섯마치, 여섯마치	원진→겹원진	세마치내는가락, 세마치, 네마치, 다섯마치, 여섯마치, 재넘이두마치, 두마치
	일곱마치	원진→방울진	일곱마치, 잉어걸이, 재넘이두마치, 두마치
	여덟마치	역원진→원진→겹원진	여덟마치, 잉어걸이, 재넘이두마치, 두마치
	아홉마치	원진→방울진	아홉마치, 잉어걸이, 재넘이두마치, 두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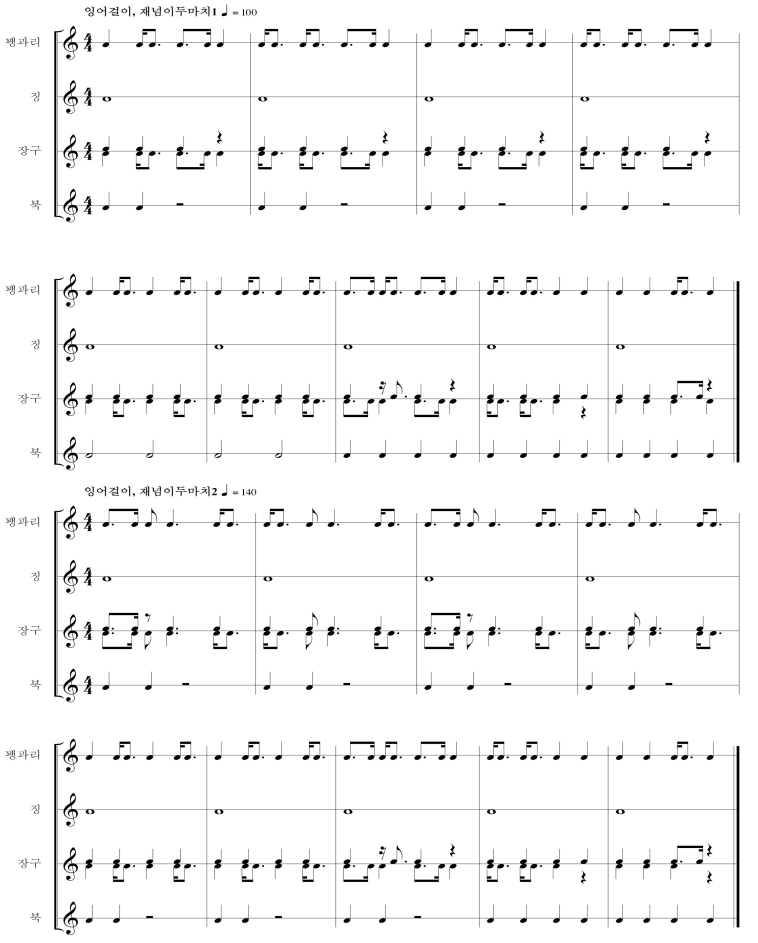
	오방진	오방진	짝드름, 두마치
	품앗이굿	곡진→사자진→미지기진	허튼채, 품앗이굿, 두마치
	호호굿	곡진→첩자진→쌍방울진→태극진→원진→방울진	호호굿초, 호호굿, 긴호호굿, 갈림굿, 각진굿, 각진굿다드래기, 두마치, 짝드름
	느진마치	역원진→원진→삼방울진→원진→방울진	느진마치내는가락, 느진마치, 자진마치, 외마치, 두마치, 짝드름
	영산굿	방진→미지기진→방울진	허튼채, 홑영산, 겹영산, 영산다드래기, 두마치
	추자받이	곡진→원진→ 방울진	허튼채, 쇠놀이, 소고놀이, 장구놀이, 열두발놀이
뒷굿	춤굿	역원진→원진	춤굿, 년굿, 자진마치, 외마치, 수박치기, 두마치
	미지기굿	이자진→미지기진	허튼채, 미지기내는가락, 미지기굿, 두마치
	삼진굿	이자진→첨자진→원진	허튼채, 삼진굿, 외마치, 두마치
	등지기굿	원진→등지기진→원진	허튼채, 등지기내는가락, 등지기굿, 두마치
	고사리꺾기	원진 → 첨자진	세마치, 두마치
	몰이굿	겹원진	허튼채, 몰이굿, 두마치
	밧삭굿(돌굿)	원진→겹원진→태극진→을자진→원진	허튼채, 밧삭굿(돌굿), 보통열두마치, 외마치, 두마치
	도둑잡이굿	이자진→쌍방울진→원진	
	소리굿	원진	허튼채, 소리굿초다듬이, 두마치, 소리굿, 보통열두마치, 두마치
	파송굿	원진→방울진	입장단, 파송굿, 두마치, 인사굿
	홍억이타령	원진	세마치
	재넘기굿	원진→방울진	재넘기굿, 막음굿, 두마치, 인사굿

금산농악에 앞굿과 뒷굿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호남농악의 전통과 맥락이 닿고 있다는 말이다. 앞굿과 뒷굿, 전굿과 후굿으로 알려져 있는 좌도농악에서 이 전통은 면면하게 이어지는데, 앞굿과 뒷굿이 필요한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뒷굿의 설정 이유는 밤을 새워서 굿을 하기 때문에 뒷굿이 필요한 것이다. 뒷굿을 쉬면서 놀이하면서 신명풀이를 하면서 일정한 굿판을 공간적으로 확장하면서 놀이를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굿에서 보여준 유기적이고 순차적 특성은 대다수 해체된다. 외마치질굿에서부터 추자받이까지 보여주었던 일련의 흐름은 유기적이고 채굿, 품앗이굿, 호호굿, 영산굿 등의 굿거리가 다분히 논리적 전개를 이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락이 촘촘히 전개되고 논리적인 틀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앞굿에서의 특성은 그러한 각도에서 집약적이고 사람들에게 신명에 몰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굿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흔히 잉어걸이, 재넘이두마치, 두마치 등의 가락을 일정하게 연결하면서 치는 것인데, 가령 그러한 관용구들을 연결하면서 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잉어걸이라고 하는 용어는 춤을 출 때나 판소리에서 보이는 것인데 이것이 농악놀이로 들어와 있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 악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악보 4〉 마치굿의 가락보 정리



두마치 가락을 변주하면서 쇳가락이 화려하게 바뀌는 대목이 있는데 그 점을 두고서 잉어걸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쓰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두마치 가락을 변주하는 상쇠의 가락을 잉어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부터 쓰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다른 기록에서는 그 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도의 쇳가락 가운데 마치굿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현상을 두고서 잉어걸이와 두마치의 모둠가락을 함께 이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용어를 찾아서 정리하면서 충실한 전통에 입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뒷굿에서는 순차적이고 논리적이며 유기적 전개를 멈추고 병렬적이고 즉흥적이고 삽화적 전개를 보이기 시작한다. 소리에 의존하는 굿의 전개가 멈추어지고, 소리만이 아니라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흐름이 제시된다. 그러한 각도에서 다양한 굿거리의 구성이 필요하며 실제로 이에 걸맞는 놀이들이 전개되면서 굿판의 흥이나 신명을 고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뒷굿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놀이들이 모두 온전하게 전개되는지 의문이다. 금산농악의 전통 속에서 이러한 굿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몇 가지 놀이들이 과연 그렇게 전승되는지 전승 자체의 변질은 없는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가능성이 있으며 뒷굿의 전통이 살아 있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안이고, 금산농악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과연 뒷굿의 전통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재고해야 마땅하다.

그 가운데 뒷굿의 전통 가운데 몇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가령 뒷굿에서 하는 등지기굿, 고사리꺾기, 몰이굿, 밧삭굿, 도둑잡이굿 등은 그러한 점에서 재론해야 할 대상들이라고 하겠다. 등지기굿은 일종의 대열에 맞추어서 벌이는 놀이적 행위의 재현이고, 고사리꺾기는 특정한 행위의 모방이며, 몰이굿은 짐승을 몰아내면서 사냥하던 전통의 모방적 재현이라고 하겠다.

밧삭굿은 돌굿이라고 하는데 치배들이 돌면서 춘다고 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벙어리삼채 또는 벙어리열두마치, 보통열두마치 등으로 일컬어지는 특징적인 가락이 배열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가락이 특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아주 편안한 가락으로 널리 알려진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도둑잡이굿은 일광놀이와 도둑잽이의 놀이적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굿놀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앞굿과 뒷굿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장 특별한 대목은 역시 소리굿, 파송굿, 홍억이타령, 재넘기굿 등이 이룩하는 결말 방식이다. 소리굿은 소리를 하면서 징과 쇠를 치지 않고 사설만 열거하는 것과 소리굿인 옥설가를 겸하여 부르는 것이다. 옥설가는 좌도굿이나 우도굿에 모두 있는 것으로 가락과 소리의 사설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것의 특징을 구현한다.

파송굿은 특정한 사설을 외면서 이를 가락으로 치는 것인데, 가령 몇 가지만 있으니, “암도깨비 숫도깨비 아들 낳고 딸 낳고/ 콩 꺾자 콩 꺾자 두렁 넘어 콩 꺾자/ 별 따자 별 따자 하늘 잡고 별 따자”라고 하는 말을 한 토막씩 외고 이를 악기로 반복하는데 세 번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말과 가락이 어울리는 가장 신명나는 것이지만 사설의 내용은 이제 그만하고 헤어지자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송굿은 진안농악에서는 이를 파장굿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재넘기굿을 하는데 이 전통 역시 판굿으로만 해명할 수 없는 불을 피우고 이를 넘는 굿으로 의례적 완결성을 구현한다. 전라도의 전통에서 상가집에 갔다온 사람이 집으로 들어올 때 불을 넘는 대목이 있는데 굿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이를 넘는 굿을 친다. 그렇게 해서 판굿은 마무리된다.

4. 금산농악의 무형 문화유산적 가치

금산농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금산농악은 어찌보면 좌도농악에서 가장 소중한 농악이며,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산농악은 여러 가지 소인으로 말미암아 무형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온전하게 부여받지 못했다. 농악의 문화유산이 가장 소중한 전통이 되는 점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승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능사이며 유일한 대안인가 하는 점에 반성적 사유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금산농악은 지리적 입지 조건이 각별하다. 경상북도와 연결되고 전라북도 진안, 무주, 전주 등지와 생활권이 심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금산농악과 진안농악이 깊

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자명하다. 좌도굿 가운데 가장 고형적이면서 특징적인 구성을 하고 있고 일정한 가락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농악이 금산농악이다. 이미 진안농악은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전승 자체가 불투명한 처지에 놓여 있다. 금산농악의 전승을 위한 활발한 노력은 이 지점에서 소중하다.

금산농악 역시 순탄하게 전승을 활성화시켰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앞에서 재발견되는 과정을 보면서 특정한 시대와 고비마다 금산농악을 일깨우고자 하는 깊은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점차로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불분명했던 것을 차츰 되찾아가는 고난의 역정이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악문화를 전통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산농악의 가치는 그다지 원만하게 구명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금산농악을 조망하고 값지게 하는 문화재적 의미 부여는 분명하게 필요하다.

이제 금산농악의 전승을 위해서 일정한 기로가 마련되었다. 농악을 이어가려는 의지와 전망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돕고 또한 활성화시키는 소인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반성을 하게 한다. 한 때 번성했던 전통문화유산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희석되고 세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승에서 이탈하고 고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활성화하는 적극적 의지를 고취하고 학술대회를 하면서 방향을 모색하고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데 분명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농악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생래적 조건이 집단적 전승물이었는데, 이제 지자체 민주화시대에 일정하게 정치적 집단으로 둔갑하여 거래가 가능한 문화적 집단의 힘을 가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중요무형문화재나 지방문화재로 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산농악은 그 어떤 문화재도 되지 않았다. 금산농악이 살아야 좌도굿의 전통이 살아나고 아울러서 동시에 한국 농악문화의 기층 가운데 하나가 살아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금산농악이 뻗어갈 자리가 어디인가? 군민들과 함께 일어서야 한다. 충청남도의 가장 소중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전통이 우리를 흥겹고 신명나게 하는 금산농악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금산농악의 전통, 금산농악이 뻗어나갈 자리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돌볼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은 인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신명나는 판을 펼칠 수 있게,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농악의 문화유산보존과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농악의 전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성복, 『금산의 송계』, 금산문화원, 2001.

_____, 『천내강 배걸립굿』, 금산문화원, 2000.

김익두 외, 『호남좌도풍물굿』,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4.

김정헌, 『남원농악의 장단』, (사)한국농악보존회 남원지회, 2006.

정인삼 · 이소라, 『금산의 풍악과 소리』, 금산문화원, 1992.

홍현식 · 박헌봉 · 유기룡, 『임실필봉농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_____, 『호남농악』, 문화재관리국, 1967.

2. 논문

김헌선, 한국 풍물굿 학회 전반기 학술발표대회(8월 24일), 「농악의 연행미학－좌도 영산굿 쇳가락, 그 뜨거운 충동의 미학을 구실삼아」, 『풍물굿의 미학적 지평』, 한국풍물굿학회, 2013.

김현구, 「오락과 유희－농악」, 『금산군지』, 금산군지편찬위원회, 1969.

3. 인터넷자료

금산농악보존회, http://www.geumsannongak.co.kr (2013년 9월 2일 오전 10시 36분)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jsp/um/SoundListen1.jsp?um10no=msu_6026&um20no=0702_02_6026

(2013년 9월 8일 오전 10시)

http://yoksa.aks.ac.kr/jsp/um/SoundListen2.jsp?um10no=msu_6026&um20no=0702_02_6026

(2013년 9월 8일 오전 10시)

A Study of the Jinan Nongak

Kim, Heon-Seon*

This paper analyzes the components of the cultural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phase of the Jinan Nongak. Jinan Nongak through which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position of the Jeolla province left in Nongak regulations also intended to be a key element of this article can be said. Jinan Nongak is left is a series of studies to occupy a very important position as Nongak despite not perfect, because research studies Nongak whole country has determined that certain defects are. In order to correct this point in Jinan Nongak. Nongak simultaneously reveals the basis for identifying the nature of the cultural history and significance of phase one is saying who is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Key Words : *Jinan Nongak, Jeolla province left in Nongak, Gajuenyeoldumachi, Apgut, Dwitgut*

* Kyonggi University